

설교의 능력과 성령

정 근 두

· 고신대학신학대학원 졸업
· 남아 포체프스트롬 대학교 신학부 Th.D.

신약에 나오는 몇몇 본문을 통해 설교의 능력을 위해서 성령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살피고 능력있는 설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한다.

1. 성령의 절대적 필요성과 자유로움의 요소

설교의 궁극적 목표가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대면케 하는 일인 이상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다운 반응은 성령의 사역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자연인은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성령이 역사하기까지는 죽은 자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하는 동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자유로이 내맡겨야 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지만 항상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잘 준비해서 충분히 익숙해야 한다. 물론 원고 없이도 매일 수 있지만 설교자는 자신의 원고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설교하는 동안에도 영감을 주시기 때문이다. 칼빈은 “설교 하는 동안 반드시 성령께서 지속적인 영감을 주실 여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로이드존스는 “내가 설교한 말 중에 최상의 것은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 설교 준비 중에 생각도 못한 것이 실제로 설교하는 가운데 주어졌다.”고 고백했다. 영적 자유로움의 요소로 인해 설교자는 설교 도중 성령 충만한 영적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부터 무엇을 전달받을 수 있다. 성도들의 열심과 반응이 설교를 가끔 새롭게 살아나게 만드는 것은 설교자의 일반적인 경험이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흥 기간 동안에는 쉽게 설교가 가능해지고, 놀변이 달변으로 바뀌기도 하는 비상한 자유를 설교자들이 누리기도 한다. 설교하는 도중 발전되는 설교는 놀람, 감사,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을 설교자에게 가져다 준다. 설교하는 도중 성령님께 개방되어 있지 못하면 설교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런 경험을 놓칠 수도 있다. 설교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 복음서(눅 3:21~22)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교와 성령

1) 눅 3:21~22은 그 앞 문단(3:1~20)의 클라이막스로 이해해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은 서로 겹치지만(눅 7:19 이하, 요 3:22 이하) 누가는 이 사건을 요한이 한 모든 사역의 절정뿐 아니라 그의 세례 활동의 절정으로 기술한다(Marshall 1978:150). 달리 말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로 완성된다. 요한에 의해서 준비되신 주님께서 사역을 착수하시게 된다.

2) 이 부분을 흔히 예수의 세례라고 부르지만 마태나 마가의 기록은 몰라도 누가복음에는 문장 구조상 실제 세례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강조점은 세례와 수반된 하늘이 열리는 특정 사건에 놓여 있다. 마샬(1978:54, 152)에 의하면 이런 구조의 효과는 초자연적 현상을 강조하는 반면, 부수적 지상 상황의 중요성을 감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실 동안에 일어난 일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3) 주 문장에 나오는 세 개의 등위 부정사가 초자연적 현상을 보여 준다. 첫 부정사는 (열리며) 하나님의 계시가 곧 일어날 것을 표시하고 다른 두 부정사는 (강림하시더니, 나기를) 이들 초자연적 현상의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한다.

4) 하늘이 열림으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 형체와 같이 내려 오셨다. 이 현상을 예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눅 4:18)으로 이해하셨고, 초대 교인들도 그렇게 믿었으며(눅 4:27), 베드로 역시 그렇게 설교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행 10:38).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달리 말해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케 능력을 구비시킨 사건이다.

5)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늘의 음성과 동반되었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유별한 관계임을 강조하심으로 아들되심(Sonship)을 입증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출발점에 아버지의 지속적인 기쁨을 나타내심으로 **메시아되심(Messiahship)**을 입증하신 것이다.

6) 요한의 세례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눅 7:29~30)처럼 주님의 경우에도 세례받으심은 그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즉, 세례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대속적인 구속을 이루실 백성들과 하나되셨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특별한 기쁨이 표현되고 있다(Hendriksen, 1979:216~7, 219).

7) 이 초자연적 현상을 또한 예수님은 인치심으로 이해하시고 설교하셨다.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요 6:27). 주님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성령의 나타내심과 귀로 들리는 아버지의 선언으로 아들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인치셨다. 그의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께서 필요로 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관계와 그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중 확신(a double assurance)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심을 알고 계셨으나 아버지의 선언으로 이 사실이 재확인된다. 이 사실의 인침에 의해 예수께서는 메시아의 임무를 맡으셨을 뿐 아니라 그 임무를 수행하시기에 구비되셨다.

8)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치심이 기도하는 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누가는 그런 상황에 “성도가 따라야 할 모범”(Marshall, 1978:152)으로, 특히 공사역을 수행할 설교자들을 위한 모범으로 암시

하고 있다.

3.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과 바울의 설교(고전 2:1~5)

1) 이 본문에서 설교에 대한 바울의 엄숙한 결단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 ① 설교의 내용에 대한 결단 / 1-2절
- ② 설교의 전달에 대한 결단 / 3-5절

1절과 3절 초두에 나오는 같은 구절($\kappa\alpha\upsilon\omega$ $\pi\rho\omicron\varsigma$ $\upsilon\mu\alpha\varsigma$)은 이런 구분이 타당한 것을 보여 준다. 각 부분은 긍정과 부정을 두 번씩 대조시키고 있다. 각 부분마다 접속사를 두 번째 대조 앞에 두어서 첫째 부분의 이유와(2절 초두), 목적(5절 초두)을 각각 밝히고 있다.

2) 설교의 내용에 대한 바울의 결단은

- 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 ②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기로 한

이유는

- ① 다른 아무 것도 설교하지 아니하고

②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심만 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덴에서 그의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에”(Grosheide, 1979:59) 그의 임무에 대한 재고를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kappa\alpha\upsilon\omega$ (1절)가 이 엄숙한 결단에 대한 보다 나은 이유를 제공한다. $\kappa\alpha\upsilon\omega$ (and I, accordingly)는 앞 부분(1:18~31), 특히 27절에서 설교한 원리와 사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일관성을 강조한다(Rieneker, 1982:320).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고전 1:18~31) 사실에 입각해서, 바울은 세상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선포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의 증거”(Van der Walt, 1986:197)란 설교 전반에 관한 바울의 정의이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내린 결단은 그가 어디서나 했던 결단이다. 왜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그의 설교의 내용

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닦아 둔 터에 해당한다. 설교자는 상황과 청중에 따라서 특정 형태와
 소재는 바뀔 수 있으나 그의 근본 메시지는 동일하다.

3) 설교의 방법에 대한 바울의 결단: 그의 말과 그의 설교가

①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②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 뿌
 리를,

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② 하나님의 능력에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1절 2절의 진리에 입각해서 3절의(καγω) 설교 방법에 관한 엄
 숙한 결단을 내렸다. 그의 설교 내용에 일치하는 설교 방법을 채택하기
 로 결단을 내렸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설교 내용에 관한 지식과 그에게 맡겨진 임무
 의 중대함에 대한 인식이 그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심히 떨게 했다. 그
 의 염려는 “말은 사역이 너무 큰 반면 자신의 무능함을 의식하는 데서
 나온”(Hodge, 1983:31) 것이다.

4) 바울은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노력을 할 때 자신
 의 변론이나 설득 기술에 의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있는 나타남”
 (Hodge, 1983:31)에 의지했다. 바울은 오직 설교에 성령의 강력한 나
 타남만을 굳게 믿었다. 그것만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살전 2:13)으
 로 만드는 유일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
 의존심은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갖게 된
 다.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는 것이다… 그
 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시도록(벧전 4:11)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Van der Walt,
 1986:193-4).

4. 능력있는 설교를 위한 기도의 지원(엡 6:18-20 분해)의 필 요성

1) 본문을 두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① 기도에 대한 바울의 일반적 교훈 / 18a-18c

 기도에 대한 바울의 일반적 부탁 / 18d

② 설교를 위한 바울의 기도 부탁

 메시지를 위해 / 19

 전달 행위를 위해 / 20

2) 에베소 성도를 향한 설교자로서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을 보면 그의 설교관이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타난다.

① Sermon

② Preaching

3) 바울의 생각 속에는 설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과정과 그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구별된다. 바울은 이 양 과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런 나타남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so that” God will give me a message(GNB)

“and that” in proclaiming it I may speak boldly(NASB)

4) “나로 입을 벌려”- 말하는 순간에 그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로서 이해한다.

“When I begin to speak” (Zerwick 1981) (Hanna 1983)

바울은 결코 자신이 메시지를 통제한다고 감히 생각 못했다. 오히려 말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실제로 설교하는 순간 그가 말한 최선의 것이 주어진다.”는 로이드존스의 말은 바울로서는 이상할 것이 없다.

5) 둘째 기도 제목 중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란 단어는 자유롭게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것을 뜻한다. 앞 절에 같은 요소가 나왔다. “완전한 확신으로 말미암은 자유로움”은 매우 중요하다. 바울 역시 설교 전달 과정에서 이 자유로움을 주요인으로 강조한다.

6) 기도의 일반적 교훈과 비교해 보면 바울은 앞 부분의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에서 기도로 기도되게 하는 신적 요인(The divine agent)인 성령을 언급한다. 뒷 부분 설교자를 위한 기도의 부탁에서는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신적 요인을 언급하는 대신, 그런 설교의 특징-담대히-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설교안에서 만이 담대히(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다. 바울 역시 이 요인을 거듭 강조하며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바울은 이를 위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① 성령 안에서 설교의 자유로움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선물로서 이해하고 있다.

② 기도의 응답으로 또한 설교 원고 작성 때도 메시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자신이 이를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설교를 위한 평신도의 기도 지원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겸손히 섬기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5.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한 삶

1) 순종의 삶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설교를 위한 지름길은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와 어떻게 기도하느냐와 분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삶 전반에 대한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설교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설교자의 일상 생활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훈련의 궁극적 목표는 순종이다. 일상 생활의 경건 훈련이 먼저 되고 나서 설교에 임하는 특별한 기름 부음의 간구가 바른 순서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힘든 연구와 준비의 대체물이 아니다. 이것은 양자 택일이 아니고 상호 보완이다. 이 축복을 위한 기도는 지속적인 간구이며 간절하고 긴급한 간구이다(눅 11:5-13).

2) 기도의 삶

설교의 기름 부음은 기도를 통해 얻는 축복이다. 패커(Packer)는 성령 세례를 개별적 경험으로 보는데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지만 이 문제에서만은 동의한다. “이는 기도로써 구해지는 선물”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이나 능력 그 자체만 구해서는 안 되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한다.

결 론

참 설교를 위해서 성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복음주의 설교자는 아무도 이것을 이론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없어도 될 것처럼 설교하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론이든 실제에 있어서든 이를 부인할 때 참 설교와는 멀어지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설교에 있어서 자유로운 요소가 강조되지 않으면 설교학의 다른 제 원리가 무효화된다. 해석학적, 강해적 원리는 능력있는 전달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학적 노력과 설교학적 방법에는 신경을 쓰지만 거룩한 삶과 간절한 기도에 얼마나 종사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중 앞에서 하는 연설은 숙련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설교는 거룩한 삶으로부터 나온다. 설교자는 언제나 성경 본문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야 한다.

능력있는 설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서만 기대될 수 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나니…”

참고 문헌

GROSHIDE, F.W. 1979. 1 Corinthian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HANNA, R. 1983. A grammatical aid to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HENDRIKSEN, W. 1979. The Gospel of Luke (New Testament Commentar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HODGE, C. 1983. A Commentary on 1 & 2 Corinthians (A Geneva Series Commentar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HARSHALL, I. H. 1978. The Gospel of Luke.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RIENECKER, F. & ROGERS, C. 1982. Linguistic key to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 :Zondervan.

VAN DER WALT. J.J. 1986:Die betekenis van die 1983-vertaling vir die Christusprediking. (In Van der Walt, J.J. ed. In ons eie taal. p. 193-204.)

ZERWICK. M. & GROSVENOR, M. 1981. An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Rome:Biblical Inststute press.